

## 【 해외금융 뉴스: 중국 】

### 보감회, 방카슈랑스 모집인 관리감독 강화

-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(이하 보감회)는 방카슈랑스 모집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<방카슈랑스 모집인 전문관리제도 규범화 관련 통지>를 확정해 발표함.
  - 보감회는 방카슈랑스 판매 급증에 따른 경쟁 과열로 방카슈랑스 모집인과 관련된 문제점이 잇따르자, 관련 규정 신설 등 방카슈랑스 모집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<방카슈랑스 모집인 전문관리제도 규범화 관련 통지>를 발표해 올해 8월 16일부터 시행함.
  
- 특히, 이번 규정은 방카슈랑스 모집인에 대한 노동계약서 작성을 올해 말까지 의무화하는 등 그동안 모호했던 방카슈랑스 모집인과 은행원을 명확히 구분해 법적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도록 함.
  - 중국의 방카슈랑스는 우리나라와 달리 보험회사 소속 보험모집인이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은행원은 판매에 일절 관여해서는 안 되도록 규정되어 있음.
  - 지난 2006년 6월 보감회와 은행감독관리위원회가 공동 발표한 <은행의 보험대리업무 규범화에 관한 통지>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법제화했으나, 보험상품에 대한 지식 및 판매 권리가 없는 은행원이 보험판매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.
  - 이에 보감회는 방카슈랑스 모집인이 본인의 신분이 명시되어 있는 노동계약서를 올해 말까지 작성하도록 하는 한편, 판매 권한이 없는 은행원들의 보험상품 판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위반 시 엄격한 처벌을 강조함.
  - 전문가들은 보감회의 이번 조치가 방카슈랑스 모집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, 현재 방카슈랑스의 과도한 집중 현상이 해소되지 않는 한 근본적인 해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.

(보험감독관리위원회 홈페이지, 상해증권보, 8/17)